

베이비부머세대 여성의 취업계획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최 원 석*
(대구대학교)

이 진 속
(대구대학교)

본 연구는 베이비부머세대 여성들의 취업계획을 분석하고, 이에 대한 영향요인을 파악하여 이들이 의존적이기 보다는 자율적으로 노후를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자 하는 데에 연구목적이 있다. 본 연구에서 분석자료는 한국여성가족패널 2차년도 자료가 활용되었으며, 분석방법은 빈도분석, 교차분석 그리고 위계적 이항 로지스틱 회귀분석이 적용되었다.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베이비부머 세대 여성은 개인적 특성 측면에서는 경제상태가 여유가 없다고 인식할수록 취업계획이 있는 경우가 많았고, 가족요인은 시부모 및 미혼성인자녀에게 사적이전지출이 있는 경우에 취업계획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산요인에서는 시부모나 미성년 자녀에게 생활비를 비롯한 지출이 있는 베이비부머세대 여성이 취업을 계획하고 있었다. 본 연구의 결과를 바탕으로 베이비부머세대 여성의 노후준비를 위한 정책적 함의를 제시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노인 일자리 창출사업에 있어서 베이비부머세대 여성의 특성을 고려한 일자리가 모색되어야 한다. 둘째, 베이비부머 세대 여성의 부양부담을 줄이기 위해 사적이전 지출의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기초노령연금과 같은 공적 연금제도의 확대를 통해 은퇴 후에도 노인의 소득을 보장할 수 있는 다양한 제도의 검토가 필요하다.

주요용어: 베이비부머, 여성, 취업계획, 노후준비, 이항 로지스틱 회귀분석

* 교신저자: 최원석, 대구대학교(mission2000@hanmail.net)

■ 투고일: 2014.1.27 ■ 수정일: 2014.3.14 ■ 게재확정일: 2014.3.30

I. 서론

일반적으로 베이비붐(baby boom)이란 어떤 특정한 시기(예: 전쟁 직후)에 출생되는 아이의 수가 폭증하는 현상으로, 이 시기에 태어난 출생 코호트는 베이비부머(baby boomer)라 불려진다.¹⁾ 베이비부머처럼 특정 인구세대를 별도로 구분하여 개념화하는 이유는 이러한 현상은 사회의 인구구조에 특이한 특징(예 : 출생아 비중의 급변)을 야기하기 때문이다(이여봉, 2012: 33-34).

2010년 11월 1일 현재 우리나라의 베이비부머(만 47세~55세)는 695만 명으로, 이는 우리나라 전체 인구(4,799만 명)의 14.5%에 해당되는 규모이다. 베이비부머를 성별로 비교해보면 남성은 346만 명(49.8%)이고, 여성은 349만 명(50.2%)으로 여성의 수가 3만 명 정도 더 많은 상황이다(통계청, 2010). 우리나라의 베이비붐세대는 2010년부터 본격적으로 은퇴를 시작하고 있어서 앞으로 비경제활동인구의 증가에 따른 사회·경제적 부담은 더욱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

베이비붐세대 여성은 그 이전의 여성들에 비하면 교육수준이 괄목할 만큼 향상되었고, 사회적 능력도 향상되었다. 그러나 이들은 현재의 경제활동에 있어서는 전통적인 여성들과 다를 바 없이 여전히 남성에 비해 소극적이며, 생계문제에 있어서 남편 또는 자녀에게 의존적인 속성을 보인다(박창제, 2008). 그리고 같은 베이비붐세대라 할 수 있는 50대의 남성들은 직접 은퇴를 경험하고, 노후에는 연금을 비롯한 사회보장의 혜택을 받게 되지만, 베이비붐세대 여성들은 전통적인 가치관을 유지하면서 가장에게 의존해 왔기 때문에 주 수입원이 상실될 경우에 경제적 수단이 전무해지고, 전통적 성역할로 인해 노부모 및 미독립 자녀의 돌봄이라는 문제까지 떠맡게 됨으로써 이중적 부담이 더욱 가중되는 시기에 진입하게 된다(서미경, 2012: 206-207).

위와 같은 베이비붐세대 여성의 일반적 특성 외에도 특히 우리나라의 베이비붐 세대 여성들은 1990년대 말에 외환위기를 겪으며 남성 가장의 실업, 폐업, 명예퇴직 등으로 인해 가정에서 주 수입원의 상실을 경험한 바가 많고, 그로 인해 자의 반, 타의 반으로 경제활동에 내몰리게 된 경우들이 많다. 이는 우리나라 가족의 부양모델이 남성생계부

1) 베이비부머라는 용어와 관련하여 일반적으로 베이비붐 세대가 포함된 40-65세의 중년층이면서, 아이들과 아이를 둔 부모를 돌보는 개인을 의미하는 용어로 'sandwich generation'이라는 개념도 확산되어 있다(Lisa, 2001).

양자 모델에서 맞벌이모델로 이행하는 데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계기가 되었다. 하지만 현실을 되돌아보면 이들은 노동시장으로의 진입은 성공하지만 그 수치가 그리 크게 상향된 것은 아니며, 남성중심적 노동시장 구조와 직장문화가 확산되어 있는 우리나라에서 이들은 실제로는 불안정한 고용계층을 형성하는 중심적 집단이 되었다. 이는 베이비부머세대 여성들이 취업에 대한 필요성 또는 욕구는 강하게 가지고 있지만 취업현실은 그와 큰 괴리를 보이고 있고, 이로 인해 여성들은 결국 노후에 소득상실과 사회보장적 배제로 인하여 남성보다 빈곤화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을 시사한다.

이상과 같은 배경 하에서, 전통적 가족부양체계의 지지를 받는 노인세대와 개인주의적 가치관에 익숙한 자녀세대 사이에서 일종의 ‘낀 세대’라 할 수 있는 베이비부머세대 여성들은 취업에 대한 현실적 필요성은 크나, 그러한 수요를 지지해주지 않는 현실 속에서 갈등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하게 되었다. 베이비부머 연령대의 여성들은 대체로 가사와 양육으로 인해 사회활동이 침체되어 있고, 갈수록 길어지는 평균수명을 고려한다면 생애관점에서도 남은 인생 후반기동안에 소득적 차원에서든 여가활용의 차원에서든 이들에게 취업은 중요한 의미를 지닐 것이다. 그러므로 취업을 통해 여성노인의 사회적 지위가 유지 또는 향상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고, 여성노인의 취업에 대해 연구하는 것은 현실적으로나 학술적으로 중요하다고 하겠다.

따라서 기혼 여성 중 특히 자녀의 집중 양육시기를 경과한 중년기 이후 여성들의 취업계획을 알아보고, 이에 대한 영향요인을 파악하여 이들 스스로가 의존보다는 자율적으로 노후를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하는 것은 매우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베이비부머 여성들의 취업계획 현황과 취업계획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해 보고자 하는 목적을 지니고 있다.

II. 이론적 배경

1. 베이비붐세대 여성의 취업 특성

한국의 베이비붐세대 중 여성은 이전 세대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교육의 혜택을 많이 받았고, 노동시장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되었다. 그러나 여성이 여전히 가사활동과 양육의 책임을 맡고 있는 오늘날의 현실 속에서 이들은 양육비용의 부담과, 노동시장에서의 성별 분리현상 및 성차별 등으로 인해 취업을 해도 시간제 직종에 종사하거나 경제적으로 완전하지 못한 은퇴를 경험하는 경향이 강하다(성미애·최새은, 2010: 2; 한경혜·손정연, 2012). 그리고 이들은 가계경제의 주된 수입원으로써 부모와 자녀를 모두 부양해야 하는 버팀목 역할을 하고 있지만 정작 본인을 위한 노후준비에는 소홀할 수밖에 없는 세대이다.

베이비붐세대의 은퇴과정에 대해 연구한 논문(한경혜·손정연, 2012)에서 볼 수 있듯이 이들의 월평균 가구소득은 남성에 비해 낮다. 베이비부머 여성들의 경제적 특성을 보면 베이비부머 남성은 단 1%만이 5년 이하의 단기 근속을 한 반면에 20년 기간을 초과한 완전노령연금 수급 요건을 가진 비율은 48.2%에 달하지만, 여성의 경우는 남성에 비해 5년 미만(22.2%), 5~10년 이하(19.6%)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난다. 여성고령자는 주로 취업경력이 없거나 불연속적이며, 공적인 조직생활의 경험이 거의 없는 경우가 많아 취업이 어려운 경우가 많다(권혁남, 2011: 168). 그러나 우리나라 여성고령자들은 나이가 들어도 대체로 근로를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박성정 외(2008)의 연구에 의하면 50대 여성은 약 60% 이상, 60대 전반의 여성은 약 50% 이상, 65~69세 여성도 40.2%, 70세 이상은 25.2%가 취업의사를 보였으며, 고령여성을 그렇지 않은 여성과 비교하면 전일제보다 시간제 취업을 원하는 경향이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 정부는 급속하게 증가하는 중고령층 인구나 저출산으로 인해 감소하는 노동력의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한 수단으로 중고령 여성들의 노동시장 참여에 관심을 두고 있다. 그들의 노동시장 참여는 개인적 차원이나 사회적 차원으로 도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긍정적인 영향을 불러올 수 있을 것이 자명하다. 하지만 대부분의 중고령 여성들은 노동시장으로의 참여도 낮을뿐더러 열악한 환경에 처해있다. <표 1>에서 보듯이 경

제활동참여율은 남성이 88.2%, 여성 60.4%이고, 고용률은 남성 86.6%, 여성 59.7%로 두 지표에서 여성이 모두 낮다. 여성이 남성에 비해 경제활동참여율이 낮은 것은 여성은 가정에서의 역할을, 남성은 일터에서의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한국의 일반적인 사고를 반영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학력별 경제활동참여 정도를 보면 여성의 경우 경제활동참여율이 가장 높은 집단이 대학원졸업 이상(76.7%)으로 남성과 다르지 않지만 다음 순위의 경제활동참여율은 초등학교졸업 이하가 66.8%, 중학교졸업 이하가 66.4%로 남성과 달리 학력수준이 낮은 집단의 경제활동참여율이 높다.

표 1. 베이비붐 세대 경제활동참여의 성별 분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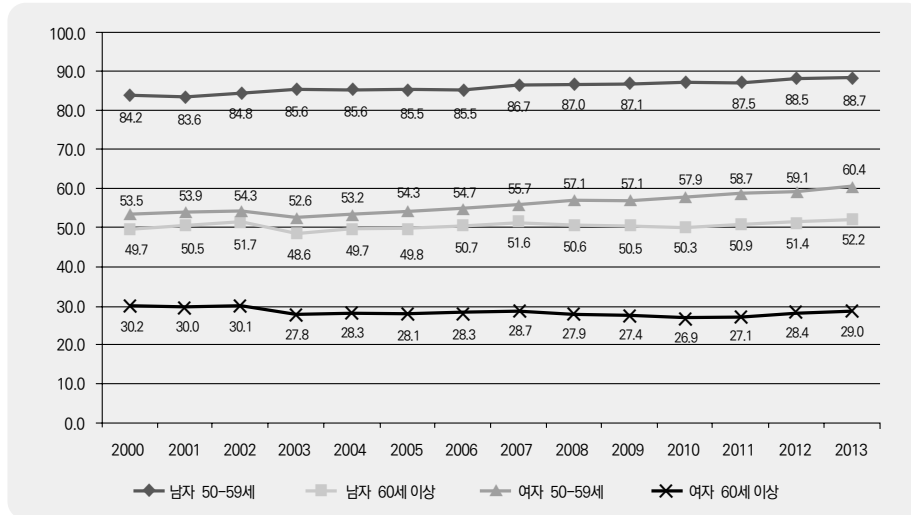
(단위: 천 명, %)

구분	전체	여성	남성
경제활동인구	5,764	2,344	3,420
취업자	5,677	2,317	3,360
실업자	87	27	60
비경제활동인구	1,994	1,535	459
경제활동참여율	74.3	60.4	88.2
고용율	73.2	59.7	86.6
실업률	1.5	1.2	1.8
계	7,759	3,880	3,879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2013), 원자료 분석.

여성 베이비붐세대의 고용현실을 살펴보면, [그림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가장 특징적인 것은 연령이 높아질수록 여성고용비율이 하락한다는 것이다. 우리나라에서는 2000년 이후 고령취업자 중에서 여성이 차지하는 비율은 감소하는 추세인데, 특히 60세 이상의 여성취업자 비율이 꾸준히 감소하여, 남성에 비해 상대적으로 연령에 따른 고용의 불안정성이 커지는 현상이 나타난다.

그림 1. 성, 연령별 경제활동참가율



자료: 통계청, 각년도.

위와 같은 특징 외에 취업의 질에 대한 문제가 지속되는 점도 주목해 볼만한 사안이다. 아래 <표 2>에서 볼 수 있듯이 종사자 지위별로 보면 2004년도 이후에 여성 취업자 중 무급가족종사자는 줄어든 대신에 임금근로자는 증가하였고, 임금근로자 중에서도 일용직은 감소하지만 상용직과 임시직의 비중은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상용직 및 임시직 취업자 전체 중 여성비율을 보면 상용직은 전체의 30%수준에 불과하고, 임시직은 60%를 차지하고 있어서 고용의 불안정한 상태가 지속되고 있음을 알 수 있는 것이다.

고용의 불안정성이 크다 보니 베이비붐세대 여성의 국민연금가입률은 45.2%로, 80.5%인 남성에 비해 거의 절반수준에 불과하다. 취업특성과 사회보장적 특성의 열악함으로 인해 베이비붐세대 여성들은 독자적으로 연금을 가진 경우는 50%미만에 불과하고 노후에 배우자의 연금에 의존하거나, 사별이나 이혼의 경우 더욱 적은 액수의 연금으로 생활해야함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베이비붐세대 여성의 경제적 특성을 고려한 노후부양 대책의 마련은 매우 절실하다고 볼 수 있다. 현재 베이비붐 세대 고령화 대응체계 구축 방안은 주로 남성은퇴자를 대상으로 일자리 유지를 위한 노후소득보장을 중심으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결국 경제활동 참가율이 낮으며, 취업자 중 임시일용근로자 비율이

높은 여성 베이비붐 세대는 이러한 상용직 중심의 대책으로는 포괄되기 어려운 집단이기 때문에 이들의 특성을 고려한 정책과제가 발굴되어야 한다.

표 2. 여성 취업자의 지위 비중 추이

(단위 : %)

연도	임금근로자				자영업주	무급가족종사자
	계	상용직	임시직	일용직		
1990	56.8	21.4	22.5	12.9	18.7	24.5
1995	59.6	25.5	24.2	9.8	19.4	21.1
2000	61.5	19.1	28.5	13.9	19.2	19.3
2003	65.6	23.2	31.0	11.4	17.8	16.7
2004	66.6	24.4	30.6	11.5	18.6	14.8
2005	67.1	25.6	30.2	11.3	19.0	14.0
2006	67.7	27.1	30.0	10.8	18.8	13.5
2007	68.8	28.7	29.9	10.2	18.5	12.7
2008	69.6	29.9	29.7	9.9	18.0	12.5
2009	71.2	31.2	30.6	9.3	16.9	11.9
2010	72.9	34.5	30.0	8.4	16.1	10.9
2011	73.6	37.1	28.7	7.8	15.7	10.7
2012	74.0	38.7	28.3	7.0	15.5	10.5
2013	74.7	40.6	27.6	6.5	15.2	10.1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각 년도.

2. 베이비부머세대 여성의 취업계획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중고령자의 취업결정요인과 관련된 국내의 연구는 그리 많은 편이 아니다. 성지미·안주엽(2006)은 2003년에 실시된 제6차 한국노동패널 및 중고령자 부가조사 결과를 활용하여 중장년층(30세 이상 50세 미만)과 중고령층(50세 이상 75세 미만)의 취업결정요인을 비교 분석하였고, 그동안 주목받지 못하였던 취업결정요인으로 가구 소득원, 자산, 부채, 과거 직업력을 새롭게 조명하였다. 이들의 분석결과, 가구소득원의 형태, 자산의 규모, 이전 일자리의 특성이 취업결정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이 나타났다. 본 연구는 이러한 베이비붐세대 여성의 취업계획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에 관한 선행연구의 검토 결과를 참고하여, 영향요인을 개인적 특성, 가족요인, 자산 요인으로 범주화하고, 이에 대해 아래와 같이 검토해 보고자 한다.

가. 개인적 특성

중고령자의 취업은 노후준비와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교육, 소득, 건강 등 인구사회학적 요인을 살펴본 경우에서 관련성을 볼 수 있다(Amy, 2004; Morgan, 2004; Susan & Stacy, 2006; Gordon et al., 2007). 학력은 경제적 노후준비와 유의미한 관련 변인으로 보고되고 있다(Beck, 1984; Foster, 1996; 박미석, 2005; 정경희, 2005; 홍성희·곽인숙, 2006; 이신영, 2009). 즉,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경제적 준비율이 높고, 은퇴 후 노후생활에 대한 계획이 강하며, 노후대비 저축여부에도 영향력이 있다. 따라서 베이비붐세대 여성의 노후준비를 위한 취업계획 결정 시에도 학력이 중요한 변수로 작용하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노후 취업의지와 관련한 정경희(2011)의 조사결과를 보면 베이비붐세대 남성은 81.4%가 노후 취업을 희망하는데 반해 베이비붐세대 여성은 48.1%만이 같은 응답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런데 남녀를 불문하고 현재 취업 중인 상태인 중년이 노후의 경제활동 참여에도 더욱 적극적인 태도를 보일 것임은 매우 자명하다(양영철·임정현, 2010). 이로 미루어 보면 중년인 현재에 경제활동 참여에 성별 격차가 있다면 이는 다가올 노년의 취업의지에 있어서도 성별 격차를 초래할 것임을 미루어 짐작해 볼 수 있다.

홍성희와 곽인숙(2006)은 가구의 현재 경제능력에 대한 주관적 인식과 노후를 대비한 경제적 준비 간에 부적인 연관성이 있음을 보고한 바 있다. 반면에 박창제(2008)는 일반적으로 현재 소득에 관해 긍정적일수록 노후를 위한 경제적 준비에 더 적극적임을 보고하였다(박창제, 2008; Anderson et al., 2000). 그 밖에도 현재의 중·장년층에서는 노후의 경제적 안정을 위한 준비를 다층적으로 하는 계층과 전혀 준비를 하지 못하는 계층 간에 양극화 현상이 발생되고 있음도 지적되었다(이소정, 2011).

취업에 가장 강력한 영향을 주는 요인은 '건강'이다. 취업과 관련된 대부분의 연구들은 건강할수록 취업의 가능성이 높고(이성용·방하남, 2009; 성지미·안주엽, 2006; 허준수, 2006; 김학주·우경숙, 2004), 노동시장과의 연결이 강하며, 건강이 취업상태로 이동하게 하는 주요 요인 중 하나라고 지적한다. 엄동욱(2008)의 연구에서는 건강상태를 육체적, 심리적 건강으로 나누고, 고령층의 육체적 건강상태는 취업활동에 제한을 두는 역할을 하며, 심리적 건강상태는 취업활동을 촉진시키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여성의 경우에는 건강 외에도 취업을 결정하는 데에 중요한 변수로 '일-여가'가 있다. 여성들은 노동과 여가 중에 자신에게 더 큰 만족을 주는 것이 무엇인가에 따라 취업에 영향이 미친다는 것이다(Mincer, 1962; Meghir & Whitehouse, 1997; 장지연 외, 2008 재인용). 베이비부머세대 여성은 취업한 경우에도 동세대인 남성에게 비해 임시 근로직에 대한 종사비율이 높다. 베이비부머세대 여성은 교육수준의 팔목할 만한 향상에도 불구하고 노후를 위한 경제적 준비나 현재의 경제활동에 있어서는 여전히 남성보다 소극적이며 의존적이다(박창제, 2008). 베이비부머세대 여성의 이와 같은 특징은 해당 세대의 여성들이 결혼과 출산 및 육아과정에서 경력 단절을 경험하고, 재취업 시에는 종전경력과 상관없이 재취업이 용이한 서비스판매 직종으로 진입한다는 지적(김영란·주재선, 2010)에서 그 이유를 찾을 수 있다.

나. 가족요인

우리나라의 기혼여성들은 자녀에 대한 돌봄노동과 가족의 계층상승을 위해 가족과 자신의 자원을 조직하고 배분하며, 미래를 위해 투자하는 가족관리자로서의 역할이 강조되는 경향이 있다(배은경, 2004: 257-258). 기혼여성들에게 이처럼 자녀돌봄이 자신의 인생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다 보니 여성들은 자녀가 성장하여 결혼을 하게 되는 독립 시기 이전까지 자녀에 대한 투자로 인해 경제적 부담을 강하게 느끼고 있다. 성지미·안주엽의 연구(2006: 51)에 의하면 2세 미만 또는 2-6세 미만 자녀의 존재가 여성의 취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자녀양육은 여성의 역할이라는 한국의 일반적인 통념이 베이비부머세대의 여성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됨을 의미하며, 이것은 저출산 문제를 야기하는 주원인이 된다. 6세 미만 자녀가 있는 기혼 여성의 경우에는 비임금 근로상태로 변화될 확률이 높다는 결과가 제시되었는데(황희숙 외, 2012: 188), 이는 육아에 대한 부담으로 인해 취업을 결정하는 데 어려움이 따르는 데에서 기인하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이상과 같은 자녀돌봄의 부담과 더불어 베이비부머세대의 여성은 일반적으로 결혼 후에 시부모에 대한 돌봄노동과 경제적 부양부담감으로 인해 대체로 여성도 가족에 대한 경제적 기여를 해야 하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배은경, 2008: 73). 서구의 중고령여성 코호트조사 결과를 보면 응답자의 약 1/5이 가족에 대한 책임, 즉

늦게까지 독립하지 못하는 성인자녀에 대한 부양과 노부모에 대한 간병의 책임 등으로 인해 노동시장을 떠나거나, 노동시간을 줄이고 시간제를 택한다고 한다(Evandrou & Glaser, 2003, 서미경·최희진, 2011 재인용: 193).

이 밖에도 일반적으로 돌보아야 될 가족구성원의 존재와 더불어 배우자의 유무도 여성의 취업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데, 베이비붐세대 여성은 본인이 가구주인 경우에 취업을 희망하는 의향이 강한 것으로 나타난다(성효용·김민경, 2003). 이는 가정에서 주된 경제부양자로서의 역할이 취업과 유의미한 관계를 형성하기 때문인 것으로 볼 수 있다(Tonia, 2008).

다. 자산요인

이연호(2007)의 연구결과를 보면 개인들이 노후대책을 준비해야 할 시기는 '30대'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52.5%로 가장 많았고, 노후준비영역으로는 경제적 측면이 가장 필요하다고 응답한 사람이 69.6%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또한 노후에 자녀와 동거를 희망하지 않는다고 응답한 사람이 82.6%, 노년의 많은 여가시간을 보낼 일자리가 필요하여 재취업을 희망하는 사람들이 41.8%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갈수록 깊어지고 있는 노년기에 대한 준비는 누구에게도 시급한 과제가 되고 있음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자가소유 유무에 따른 노후준비의 차이에 대한 연구들(박창제, 2008; 김양이·이채우, 2008)을 보면 일반적으로 유배우자 집단이 무배우자 집단에 비해 경제적 노후준비를 더 잘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주택자산은 중·고령자의 경제적 노후준비에 도움을 크게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자가를 소유하지 못한 여성이 취업결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결과(황희숙 외, 2012)와 맥락을 같이한다.

현재의 가구경제 사정(가구소득, 부동산 등)이 노후를 위한 경제적 준비 및 노후 취업 의지와 연관성을 보이는 것은 기존 연구들에서 일관적으로 확인된 바 있다(이소정, 2011; 여윤경, 2005; 홍성희·곽인숙, 2006; 배문조·전귀연, 2004; 양순미·홍숙자, 2002). 일반적으로 현금소득은 유동자산으로 분류가 되는데, 소득이 없는 경우에 비해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취업을 희망할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나타난다. 이러한 결과가 나타나게 되는 이유는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노인이 현재 가지고 있는 자산이 실제

시장에서 제공되고 있는 임금보다 높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취업을 선택하지 않는 경향이 높음으로 인해 야기되는 것으로 생각해 볼 수 있다(황희숙·김윤재, 2011: 107). 그런데 객관적 가구경제 상황과 달리, 가구경제에 관한 주관적 인식의 영향에 관해서는 홍성희와 곽인숙(2006)은 경제 능력에 대한 주관적 인식과 노후를 대비한 경제적 준비 간에 부적의 연관성을 보고한 바가 있다. 또한, 고령자들의 개인소득의 구성에 있어, 정경희(2005)의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고령자들은 전체개인소득에서 이전소득의 비중이 매우 높은 반면, 근로소득이 차지하는 비율은 매우 낮다는 것을 밝히고 있다. 사적이전²⁾은 43.1%로 주로 친인척 등으로부터의 보조금이고, 공적이전소득은 34.4%로 공적연금이 8.1%, 기초노령연금이 20.3%,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가 6.0%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근로소득은 남성고령자의 8.9%, 여성고령자는 3.5%로 전체노후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낮게 나타났다.

이상의 내용을 종합해 보면 베이비부머세대 여성들은 독자적인 노후보장책을 확보하고 있는 경우가 남성에 비해 절반정도의 수준에 불과하고, 특히 유배우 상태인 베이비부머세대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은 무배우 여성들에 비해 훨씬 더 낮기 때문에 이 여성들은 남성 가장의 소득과 연금에 경제적으로 의존하는 경향이 높게 나타난다(정경희, 2011). 그런데 이러한 의존성으로 인해 이들은 노후에 배우자와 사별을 하거나 이혼을 하게 될 경우에 그만큼 경제적 어려움을 겪게 될 가능성 또한 높게 된다(방하남 외, 20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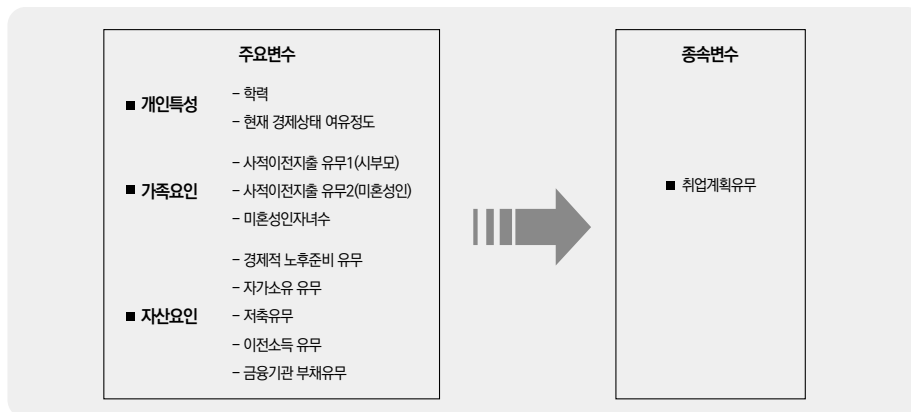
2) 사적이전소득은 가족단위로 범위를 한정하면, 일반적으로 동거하는 가구원으로부터 받는 '가구 내 이전소득'과 비동거 가구원으로부터 받는 '가구간 이전소득' 그리고 기타 친인척 및 이혼한 전 배우자 등으로부터 받는 '기타 이전소득'으로 유형화 할 수 있다(강성호, 2011). 본 연구에서는 가구 간 사적이전을 의미한다.

III. 연구방법

1. 연구모형

본 연구는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베이비붐세대 여성의 취업계획 결정 예측요인으로 학력, 현재경제상태 여유정도의 개인특성과 시부모에 대한 사적이전지출 유무, 미혼성인자녀에 대한 사적이전지출 유무, 미혼성인자녀수의 가족요인 그리고 경제적 노후준비 유무, 자가소유 유무, 저축유무, 이전소득 유무, 금융기관부채 유무의 자산요인을 선정하였고, 이를 그림으로 표현하면 아래와 같다.

그림 2. 연구모형



2. 연구대상 및 자료수집

본 연구는 베이비붐세대 여성의 취업계획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살펴보기 위하여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이 2008년 10월부터 2009년 6월까지 전국 가구의 특성을 고려하여 계통추출방법으로 조사대상을 선정하여 조사한 여성가족패널 2차년도 자료를 분석자료로 활용하였다. 본 연구는 여성가족패널 2차년도 조사 응답자 중 우리나라의 베이비부머 연령인 1955년생에서 1963년에 출생한 베이비붐세대 여성에 대한 응답결과를 2차자료로 사용하였고, 조사문항 중 '일할 계획 유무' 문항에 응답하지 않은 조사대

상자 및 연구에 활용된 변수에 응답하지 않은 경우를 제외한 총 1,728명의 자료를 분석하였다.

3. 변수의 정의 및 측정

본 연구에서 활용되어진 변수들에 대한 설명은 <표 3>에서 보는 바와 같다.

표 3. 측정변수에 관한 설명

변수		조작적 정의	속성 및 기준변수	
종속 변수	취업계획유무	추후 일할 계획이 있는지에 대한 여부	1 = 예 0 = 아니오	
	개인 특성	학 력	재학, 휴학, 중퇴, 졸업, 수료 등을 포함한 최종 학력	1 = 고졸 이상 0 = 고졸 미만
현재취업 유무		18시간미만 무급가족종사자를 포함한 취업 여부	1 = 취업 0 = 비취업	
현재경제상태 여유정도		현재 경제상태를 여유있다고 인식하는 정도 1 = 매우 어렵다 ~ 5 = 매우 여유가 있다	5점 리커드 척도	
독립 변수	가족 요인	사적이전지출 유무 1(시부모)	시부모 생활비 지출 여부	1 = 그렇다 0 = 아니다
		사적이전지출 유무2(미혼성인)	미혼 성인 자녀에게 경제적 도움을 주는지 여부	1 = 예 0 = 아니오
		미혼성인 자녀 수	현재 미혼 성인(만 19세 이상) 자녀 수	연속변수
	자산 요인	경제적 노후준비유무	65세 이후 노후생활을 위한 경제적 준비 여부	1 = 하고 있다 0 = 하고 있지 않다
		자가소유 유 무	주거점유형태	1 = 자가소유 0 = 자가소유 아님
		저축유무	일반 저축, 적금, 저축성 보험, 개인연금 포함한 저축유무	1 = 하였다 0 = 하지 않았다
인구 사회적 특성	사적이전소득 유 무	사적이전소득 유무	1 = 있었다 0 = 없었다	
	금융기관 부채유무	주택용자금, 마이너스 통장, 카드대출을 포함한 부채 유무	1 = 예 0 = 아니오	
	연 령	40대, 50대	2단계 명목변수	
배 우 자 동 거 여부	동 거, 비 동 거		2단계 명목변수	
	소 득	100만원 미만, 100만원대, 200만원대, 300만원대, 400만원대, 500만원 이상	6단계 명목변수	

<표 3>에서 보는 바와 같이 본 연구의 종속변수는 '취업계획 유무'로써 추후 일할 계획이 있는지에 대한 여부를 묻는 1문항으로 구성하였다. 독립변수는 개인특성 3문항, 가족요인 3문항, 자산요인 5문항으로 구성하였다. 인구사회학적 특성 변수로는 연령, 배우자동거여부, 소득을 사용하였다. 이중 개인특성에서 현재 경제상태 인식과 가족요인에서 미혼성인자녀수는 연속변수이며, 이외 문항은 비연속변수이다.

4. 자료분석방법

본 연구에서는 인구사회학적 특성, 취업계획유무의 분포도를 살펴보기 위해서 빈도분석을 실시하였고, 베이비부머세대 여성을 취업자와 미취업자로 구분하여 취업계획이 있는 집단과 취업계획이 없는 집단 간 변인들의 차이를 요인별로 분석하기 위해 교차분석을 실시하였다. 또한 개인특성 요인, 가족요인, 자신 요인의 모형적합도 및 영향력을 검증하기 위해 위계적 이항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하였다. 모형의 적합도는 카이제곱 값과 유의도로, 모형의 설명력 Nagelkerke R^2 으로 분석하였다. 각 요인들이 취업계획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지는 회귀계수(B), 유의도 odds ratio($Exp(B)$)를 통해 분석하였다.

Nagelkerke R^2 는 로지스틱 회귀분석 시 모델의 예측정확률을 평가하는 통계치로서 다중회귀분석의 R^2 과 같이 모델의 설명력을 나타내지만, 다중회귀분석의 R^2 과 같이 절대적인 의미로 해석할 수 없으며, Nagelkerke R^2 값은 종속변수 값에 따라 변하고 일반적으로 낮게 계산되기 때문에 너무 의존할 필요는 없다(홍세희, 2005). $Exp(B)$ 는 독립변수 1단위의 변화에 따라 종속변수의 위험도가 증가되는 정도를 의미하는 것으로, 기준범주 대비 취업계획 결정 가능성이 증가하는 정도를 보여주는 것이다.

IV. 연구결과

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베이비부머세대 여성의 일반적 특성을 살펴보기 위해 빈도분석을 한 결과는 <표 4>에서 보는 바와 같다. 연령은 '40대'가 57.0%(987명), '50대'가 43.0%(745명) 순으로 나타났다.³⁾ '배우자 동거여부'는 '유배우자 동거'가 85.7%(1467명), '유배우자 비동거'가 13.1%(225명)로 나타났고, '무배우자'는 1.2%(20명)였다. 월평균 소득수준은 '300~399만원'이 21.7%(369명), '200~299만원'이 21.4%(364명), '100~199만원'이 18.6%(317명), '500만원 이상'이 15.9%(270명), '400~499만원'이 12.6%(214명), '100만원 미만'이 9.9%(169명) 순으로 나타났다.

표 4. 베이비부머세대 여성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변수명		N	%	누적 %
연령	40대	987	57.0	57.0
	50대	745	43.0	100.0
배우자 동거여부	유배우자 동거	1467	85.7	85.7
	유배우자 비동거	225	13.1	98.8
	무배우자	20	1.2	100.0
월 평균 소득수준	100만원 미만	169	9.9	9.9
	100~199만원	317	18.6	28.5
	200~299만원	364	21.4	49.9
	300~399만원	369	21.7	71.6
	400~499만원	214	12.6	84.1
	500만원 이상	270	15.9	100.0

이러한 베이비부머세대 여성은 <표 5>에서 보는 바와 같이 67.5%(1167명)가 취업계획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32.5%(561명)는 취업계획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3) 우리나라 베이비부머세대는 1955~1963년생이며, 51세~59세의 연령을 말한다. 그러나 본 자료는 한국여성가족패널 2008년 2차년도 자료를 활용하였기 때문에, 2008년도 조사당시의 연령을 기준으로 연령대를 구분하면 46~54세에 해당하는 여성들이 베이비부머 세대가 된다고 할 수 있다.

표 5. 베이비붐세대 여성의 취업계획유무에 관한 분포도

변수명		N	%	누적 %
취업계획 유 무	아니오	561	32.5	32.5
	예	1167	67.5	100.0

2. 베이비붐세대 여성의 취업계획유무와 주요변수의 분포도 차이

가. 개인적 특성

베이비붐세대 여성을 취업자와 미취업자로 구분하여 취업계획유무에 따른 개인적 특성 분포도 차이를 살펴본 결과는 <표 6>에서 보는 바와 같은데, 미취업 베이비부머 여성이 '취업계획이 있다'라고 응답한 경우에 '현재 경제적 상태 여유정도'는 '어려운편'이라고 61.2%(145명: 조금 어려운편 + 매우 어렵다)가 인식하고 있었고, '보통이다'라고 인식하는 경우는 35.0%(83명), '여유가 있다'고 인식하는 경우는 3.8%(9명)이었다. 이에 반해 취업계획이 없다고 응답한 경우를 보면 '현재 경제적 상태 여유정도'는 '보통

표 6. 베이비붐세대 여성의 개인적 특성에 따른 취업계획유무 분포도

변수명		취업자			미취업자		
		취업계획유무		χ^2 (df)	취업계획유무		χ^2 (df)
		아니오 N(%)	예 N(%)		아니오 N(%)	예 N(%)	
학력	고졸 미만	39(61.9)	465(50.1)	3.315 (1)	171(34.3)	93(39.2)	1.677 (1)
	고졸 이상	24(38.1)	464(49.9)		327(65.7)	144(60.8)	
	합계	63(100.0)	929(100.0)		498(100.0)	237(100.0)	
현재 경제상태 여유정도	매우 여유가 있다	0(0.0)	1(0.1)	4.900 (4)	5(1.0)	0(0.0)	43.398*** (4)
	여유가 있는 편	3(4.8)	63(6.8)		51(10.2)	9(3.8)	
	보통이다	33(52.4)	453(48.7)		261(52.4)	83(35.0)	
	조금 어려운 편	15(23.8)	306(32.9)		122(24.5)	95(40.1)	
	매우 어렵다	12(19.1)	107(11.5)		59(11.8)	50(21.1)	
합계	63(100.0)	930(100.0)	498(100.0)	237(100.0)			

*:p<.05, **:p<.01, ***:p<.001.

이다라고 52.4%(261명)가 인식하고 있었다. 이는 $p<.001$ 수준에서 유의한 분포도를 보였다($\chi^2=27.950$). 미취업 베이비부머세대 여성의 학력은 분포도 차이가 없었다. 취업 베이비부머 여성의 경우는 개인적 특성관련 전체 변수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

나. 가족요인

베이비부머세대 여성의 취업계획유무에 대한 가족요인의 분포도 차이는 <표 7>에서 보는 바와 같다.

표 7. 베이비부머세대 여성의 가족요인에 따른 취업계획유무 분포도

변수명	취업자			미취업자		
	취업계획유무		χ^2 (df)	취업계획유무		χ^2 (df)
	아니오 N(%)	예 N(%)		아니오 N(%)	예 N(%)	
사적이전지출 유무 1 (시부모)	아니오	23(88.5)	311(73.0)	144(59.3)	74(68.5)	2.724 (1)
	예	3(11.5)	115(27.0)	99(40.7)	34(31.5)	
	합계	26(100.0)	426(100.0)	243(100.0)	108(100.0)	
사적이전지출 유무 2 (미혼성인자녀)	예	13(26.5)	382(50.2)	173(45.9)	71(44.9)	.041 (1)
	아니오	36(73.5)	379(49.8)	204(54.1)	87(55.1)	
	합계	49(100.0)	761(100.0)	377(100.0)	158(100.0)	
미혼성인자녀수	1명	18(35.3)	311(40.7)	145(38.4)	76(47.5)	4.466 (3)
	2명	30(58.8)	386(50.5)	209(55.3)	74(46.3)	
	3명	2(3.9)	63(8.2)	23(6.1)	9(5.6)	
	4명	0(0.0)	5(0.7)	1(0.3)	1(0.6)	
	5명	1(2.0)	0(0.0)	-	-	
	합계	51(100.0)	765(100.0)	378(100.0)	160(100.0)	

*: $p<.05$, **: $p<.01$, ***: $p<.001$.

<표 7>에서 보는 바와 같이 베이비부머세대 여성 중 취업자의 가족요인 특성을 살펴보면, 취업계획이 있는 베이비부머 여성은 미혼성인자녀에게 50.2%(382명)가 사적이전지출이 있는 경우로 나타났고, 취업계획이 없는 베이비부머세대 여성은 미혼성인자녀에게 73.5%(36명)가 사적이전지출이 없는 경우로 나타났는데, 이는 $p<.01$ 수준에서 유의미

한 분포도가 나타났다($\chi^2=10.320$). 취업한 베이비부머세대 여성의 미혼성인자녀수를 보면 취업계획이 있는 베이비부머 세대 여성의 50.5%(386명)가 '1명'이었으며, 40.7% (311명)가 '2명'의 미혼성인자녀를 두고 있었다($p<.01$, $\chi^2=10.320$). 취업자의 가족요인 중 '시부모에 대한 사적이전지출유무'는 취업계획유무에 따른 분포도가 통계적으로 유의 미하지 않았다. 또한 미취업자인 베이비부머세대 여성의 전체 가족특성 또한 유의미한 분포도를 나타나지 않았다.

다. 자산요인

베이비부머세대 여성의 취업계획유무에 따른 가족요인에 관한 분포도 차이는 <표 8>에 서 보는 바와 같다.

표 8. 베이비부머세대 여성의 자산요인에 따른 취업계획유무 분포도

변수명		취업자			미취업자		
		취업계획유무		χ^2 (df)	취업계획유무		χ^2 (df)
		아니오 N(%)	예 N(%)		아니오 N(%)	예 N(%)	
경제적 노후준비 유무	하고 있다	13(20.6)	468(50.3)	20.821*** (1)	235(47.2)	83(35.0)	9.685** (1)
	하고 있지 않다	50(79.4)	462(49.7)		263(52.8)	154(65.0)	
	합계	63(100.0)	930(100.0)		498(100.0)	237(100.0)	
자가소유 유무	예	47(74.6)	705(75.8)	.046 (1)	393(78.9)	158(66.7)	12.838*** (1)
	아니오	16(25.4)	225(24.2)		105(21.1)	79(33.3)	
	합계	63(100.0)	930(100.0)		498(100.0)	237(100.0)	
저축유무	예	28(44.4)	476(51.2)	1.072 (1)	288(57.8)	89(37.6)	26.431*** (1)
	아니오	35(55.6)	454(48.8)		210(42.2)	148(62.4)	
	합계	63(100.0)	930(100.0)		498(100.0)	237(100.0)	
이전소득 유무	예	1(1.6)	131(14.1)	7.997** (1)	54(10.8)	30(12.7)	.523 (1)
	아니오	62(98.4)	799(85.9)		444(89.2)	207(87.3)	
	합계	63(100.0)	930(100.0)		498(100.0)	237(100.0)	
금융기관 부채유무	예	17(27.0)	471(50.6)	13.217*** (1)	165(33.1)	113(47.7)	14.449*** (1)
	아니오	46(73.0)	459(49.4)		333(66.9)	124(52.3)	
	합계	63(100.0)	930(100.0)		498(100.0)	237(100.0)	

*: $p<.05$, **: $p<.01$, ***: $p<.001$.

<표 8>에서 보는 바와 같이 베이비부머세대 여성 중 미취업자의 자산요인 특성을 살펴보면, '경제적 노후준비 유무($p < .01$, $\chi^2 = 9.685$)', '자가소유 유무($p < .001$, $\chi^2 = 12.838$)', '저축 유무($p < .001$, $\chi^2 = 26.431$)', '금융기관 부채유무($p < .001$, $\chi^2 = 14.449$)'에서 유의미한 분포도가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취업계획이 있는 베이비부머세대 여성은 경제적 노후준비를 하지 않고 있는 경우가 65.0%(154명)였고, 자가를 소유한 경우는 66.7%(158명)였다. 또한 취업계획이 있는 경우에 62.4%(148명)가 저축을 하지 않고 있었고, 금융기관부채는 47.7%(113명)가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전소득 유무에 따른 분포도 차이는 없었다.

취업자의 자산요인 특성을 살펴보면, '경제적 노후준비($p < .001$, $\chi^2 = 20.821$)', '이전소득 유무($p < .01$, $\chi^2 = 7.997$)', '금융기관 부채유무($p < .001$, $\chi^2 = 13.2179$)'에서 유의미한 분포도가 나타났다. 이중 경제적 노후준비를 하지 않고 있는 여성이 49.7%(462명)로 나타났다. '자가소유 유무' 및 '저축 유무' 변수에서는 유의미한 분포도가 나타나지 않았다.

3. 베이비부머세대 여성의 취업계획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베이비부머세대 여성의 취업계획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표 9>에서 보는 바와 같다.

<표 9>에서 보는 바와 같이 모형 1에서는 투입된 개인특성 요인 변수 중 학력의 경우($Exp = .589$, $p < .05$), 그리고 현재 경제 상태를 여유 있다고 인식하는 정도가 낮을수록 베이비부머세대 여성은 취업을 계획하고 있었다($Exp = 1.383$, $p < .01$). 모형 1의 적합도는 유의미하였으며($p < .001$, $\chi^2 = 19.639$), 설명력은 4.4%이다.

모형 2에서는 투입된 개인특성 요인 변수 중 현재 경제 상태를 여유 있다고 인식하는 정도가 낮을수록($Exp = 1.346$, $p < .001$), 가족요인 변수 중에서는 시부모에게 사적이전지출이 있는 경우($Exp = 6.655$, $p < .05$)와 미혼성인자녀에게 사적이전지출이 있는 경우($Exp = 1.630$, $p < .01$)에 취업을 계획하고 있었다. 모형 2의 적합도는 유의미하였으며($p < .001$, $\chi^2 = 33.202$), 설명력은 7.4%이다.

모형 3에서는 투입된 가족요인 변수 중 가족요인에서는 시부모에게 사적이전지출이 있는 경우($Exp = .639$, $p < .05$)와 미혼성인자녀에게 사적이전지출이 있는 경우($Exp = 1.472$, $p < .05$)에, 자산요인에서는 경제적 노후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경우($Exp = 1.749$, $p < .001$) 그리고 금융기관 부채가 있는 경우($Exp = 1.776$, $p < .01$)에 취업을

계획하고 있었다. 모형 3의 적합도는 유의미하였으며($p < .001$, $\chi^2 = 367.785$), 설명력은 62.8%이다.

표 9. 베이비붐세대 여성의 취업계획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변수명		model I			model II			model III		
		B	S.E.	Exp(B)	B	S.E.	Exp(B)	B	S.E.	Exp(B)
개인 특성	학력	-.529	.183	.589**	-.589	.191	.555	-.519	.200	.595
	현재경제상태 여유정도	-.324	.152	1.383**	-.297	.109	1.346***	-.187	.130	1.206
가족 요인	사적이전지출 유무1 (시부모)				-.492	.191	6.655*	-.448	.197	.639*
	사적이전지출 유무2 (미혼성인자녀)				.489	.182	1.630**	.387	.188	1.472*
	미혼성인자녀수				-.183	.144	.833	-.166	.148	.847
자산 요인	경제적 노후준비 유무							-.559	.210	1.749**
	이전소득 유무							.520	.310	1.682
	저축유무							.357	.209	1.429
	금융부채 유무							.574	.198	1.776**
	자가소유 유무							-.424	.246	.654
상수항		-.060	.396	.942	.271	.477	1.311	-.155	.646	.856
분류정확률		67.5			69.6			70.1		
2log-Likelihood		755.229			741.666			718.852		
Model Chi-square		19.639***			33.202***			56.016***		
df		2			5			10		
NagelkerkeR ²		.044			.074			.122		

*: $p < .05$, **: $p < .01$, ***: $p < .001$.

한편, 미취업자와 취업자로 구분하여 베이비붐 여성의 취업계획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살펴본 결과는 <표 10>에서 보는 바와 같다.

표 10. 베이비부머세대 여성의 취업계획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변수명	취업자						미취업자						
	model I		model II		model III		model I		model II		model III		
	B	Exp(B)	B	Exp(B)	B	Exp(B)	B	Exp(B)	B	Exp(B)	B	Exp(B)	
개인특성	학력	.983	2.672*	.645	1.906	1.068	2.911	-.250	1.117	-.199	.820	-.147	.660
	현재경제상태 여유정도	-.195	1.215	.250	1.284	-.043	.958	-.645	1.906***	.634	1.886**	-.453	1.574*
가족요인	사적이전지출 유무1(시부모)			1.128	3.090	1.195	3.302			-.407	.666	-.338	.713
	사적이전지출 유무2 (미혼성인자녀)			1.096	2.991*	.765	2.149			-.031	.969	-.029	.971
	미혼성인 자녀수			-.436	.646	-.313	.731			-.375	.688	-.412	.663
자산요인	경제적 노후준비 유무					-1.553	4.724*					-.134	.875
	이전소득 유무					18.754	1.396E8					.283	1.328
	저축유무					1.080	2.946					.442	1.556
	금융부채 유무					1.477	4.382*					.079	1.082
자가소유 유무					-1.429	.240					-.167	.846	
상수항	1.778	5.917	1.828	6.222	.864	2.374	-3.106	.045	-2.346	.096	-2.232	.107	
분류정확률	94.5		94.5		95.1		71.3		70.9		73.3		
2log-Likelihood	150.413		141.035		113.846		270.738		266.918		264.260		
Model Chi-square	4.637		14.015*		41.204***		16.009***		19.830**		22.487*		
df	2		5		10		2		5		10		
NagelkerkeR ²	.036		.109		.308		.091		.112		.127		

*:p<.05, **:p<.01, ***:p<.001.

<표 10>에서 보는 바와 같이 취업자 베이비부머세대 여성의 경우 모형 1에서는 투입된 개인특성 요인 변수 중 고졸 이상 학력의 경우(Exp=2.672, p<.05)에 취업을 계획하고 있었으나, 적합도는 유의미하지 않았다. 모형 2에서는 투입된 가족요인 변수 중 미혼성인자녀에게 사적이전지출이 있는 경우(Exp=2.991, p<.05)에 취업을 계획하고 있었다. 모형 2의 적합도는 유의미하였으며(p<.05, $\chi^2=14.015$), 설명력은 10.9%이다. 모형 3에서는 투입된 자산요인 변수 중 경제적 노후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경우(Exp=4.724, p<.05) 그리고 금융기관 부채가 있는 경우(Exp=4.382, p<.05)에 취업을 계획하고 있었다. 모형 3의 적합도는 유의미하였으며(p<.001, $\chi^2=41.204$), 설명력은 30.8%이다.

미취업 베이비붐세대 여성의 경우 모형 1에서는 투입된 개인특성 요인 변수 중 현재 경제적 상태 여유정도가 긍정적일수록($Exp=1.906, p<.001$)에 취업을 계획하고 있었고, 적합도는 유의미하였으며($p<.001, \chi^2=16.009$), 설명력은 9.1%이다. 모형 2($p<.001, \chi^2=19.830$, 설명력 11.2%) 및 모형3($p<.001, \chi^2=22.487$, 설명력 12.7%)에서도 투입된 개인특성 요인 변수 중 현재 경제적 상태가 긍정적인 일수록 취업을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V. 논의 및 제언

본 연구는 노인인구에 대한 부양부담이 강화되고 있는 현 상황에서 노년기를 앞두고 있는 베이비붐세대 여성들의 취업계획을 알아보고, 이에 대한 결정요인을 파악하여 이들이 가족이나 사회에 대해 의존적이기 보다는 자율적으로 노후를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데에 기초자료를 제공하기 위한 목적을 추구한다.

연구에 사용된 분석자료는 한국여성가족패널 2차년도 자료였고, 본 연구는 한국여성가족패널 2차년도 조사에 응답한 응답자 중 '일할계획유무' 문항에 응답하지 않은 대상자 및 연구에 활용된 변수에 응답하지 않은 경우를 제외한 총 1728명의 베이비붐세대 여성에 대한 자료를 실제 분석에서 활용하였다. 분석방법은 인구사회학적 특성과 취업계획유무의 분포도를 살펴보기 위해서 빈도분석을 실시하였고, 취업계획이 있는 집단과 취업계획이 없는 집단 간에 변인들의 차이를 요인별로 분석하기 위해 교차분석을 실시하였다. 또한 개인특성 요인, 가족요인, 자산요인의 모형적합도 및 영향력을 검증하기 위해 위계적 이항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았다. 첫째, 베이비부머세대 여성은 미취업자 및 취업자 모두 경제상태가 낮다고 인식하는 경우에 계속해서 취업계획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선행연구(양영철·임정현, 2010)의 결과와 같다. 즉, 남성생계위주의 가계소득 만으로는 가정경제의 어려움이 있다고 인식할 경우에 베이비부머세대 여성들은 소득을 보충하기 위한 차원에서 취업계획을 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둘째, 가족요인에서는 시부모 및 미혼성인자녀에 대한 사적이전 지출이 있는 경우의 베이비붐세대 여성이 계속해서 취업계획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적으로 여성들

은 아직까지 독립하지 못한 자녀가 있을 경우에 자녀에 대한 돌봄 부담이 있어 노동시장을 떠나게 되지만(서미경·최희진, 2011: 193), 베이비부머세대 여성은 시부모에 대한 경제적 부양부담이 있거나, 자녀가 성인이 되었지만 경제적으로는 독립을 하지 못하여 지속적으로 경제적인 부양을 해야 할 경우에는 취업을 계획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셋째, 자산요인에서는 경제적 노후준비가 되어 있지 않고, 부채가 있는 베이비부머세대 여성이 취업계획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이전 세대보다는 완화가 되었지만 베이비부머세대의 상당수가 노후생활을 영위할 정도의 충분한 자산을 축적하지 못하고 있어, 추후 노후생활을 위해 취업이 필요하여 취업계획을 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이해된다(우석진·이윤수, 2011).

본 연구의 결과를 바탕으로 하여 베이비부머세대 여성의 노후 준비를 위한 정책적 함의를 제시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베이비부머세대 여성의 취업계획은 남성의 은퇴 후에 대한 노후준비의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으므로, 향후에는 베이비부머세대와 고령세대 모두를 위한 노후준비의 강화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노인 전반을 위한 일자리의 확대는 물론이고, 특히 경제적 지위가 낮은 여성을 고려하여 베이비부머세대 여성들에 적합한 일자리의 창출이 필요하다. 여성들은 자녀돌봄으로 인해 경력이 단절이 되고, 경력이 단절된 후에 직장으로서의 재진입을 희망하지만 이를 위한 노동시장의 문턱은 매우 높다. 따라서 노동시장의 이러한 구조적 요인을 철폐할 수 있는 구조적 개편과 베이비부머세대 여성들의 개인적, 가족적 특성을 고려한 일자리의 개발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베이비부머세대 여성들의 배우자들은 대체로 은퇴를 할 연령에 도달해 있을 것으로 유추된다. 그로 인해 베이비부머세대 여성들의 가정에서는 주된 소득이 상실 또는 감소될텐데, 만약 이들 가정에서 시부모 및 미혼성인자녀에게 사적이전지출이 있게 되면 베이비부머세대 여성들은 시부모 및 자녀에 대한 부양부담이 가중될 수밖에 없어 의도를 하든 안하든 간에 취업을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될 것이다. 따라서 노부모와 자녀에 대한 경제적 부양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방안이 사회적으로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본 연구에서 경제적 노후준비 및 금융기관 부채에 대한 분석결과를 보면 베이비부머 여성들은 다른 세대보다도 노후에 대한 불안감이 강하므로, 여성노인들의 자립적인 노후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노후 소득보장제도들의 강화 차원에서 일자리사업과 공적 소득보장의 강화가 필요하다. 그리고 특히 그런 차원에서 서구에서처럼 베이비부머세대를

위한 은퇴준비 프로그램이 보편화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본 연구는 베이비부머 여성들의 취업계획에 대해 분석했지만, 분석자료로는 패널데이터를 이용하였기 때문에 다양한 변수들을 분석에 활용하지 못하였고, 특히 실제로 베이비부머 여성들이 노동시장에서 활동하는 데에 중요한 영향변수가 될 수 있는 사회구조적 장애요인들(출산과 임신으로 인한 경력단절, 임금격차, 노동시장 등)에 대해서는 분석을 적극적으로 하지 못한 한계가 있었다. 그리고 본 연구에서 활용된 변수의 대부분은 비연속변수였기 때문에 자료 분석 방법을 설정하는데 있어서 심층적인 구조분석은 할 수가 없는 제한점이 있었다. 그러므로 본 연구의 결과만 가지고 베이비부머세대 여성들의 특성에 기반하는 세부 고용정책의 방안들을 제시하기에는 분명 한계가 있다. 그러나 여성들의 생애주기가 이제는 가족생활 외에도 취업을 축으로 하여 재구성되고 있기 때문에 여성에게 일자리의 획득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따라서 정부의 적극적인 고용정책의 강화는 매우 필요한 과제라고 여겨진다.

본 연구의 결과는 일반적인 가정과 유사하게 나타났지만, 선행연구들은 여성노인 그리고 특히 베이비부머 여성의 취업계획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논의한 바는 전무한 상황이다. 그러므로 이 연구는 여성들의 노후 취업계획에 대한 결정요인을 파악하여 노후준비방안을 모색하는 데에 기초자료를 제공하였다는 점이 학술 및 정책적 측면의 기여도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의 주제와 관련된 학문영역의 발전을 위해 후속연구를 제안해 본다면, 향후 베이비부머세대 여성관련 연구는 베이비부머 여성들의 취업과 관련하여 실제로 큰 상관성을 가지고 있는 사회구조적 요인들이 포함된 다양한 요인을 포괄적으로 살펴봄으로써, 이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들을 연구하는 데에 초점이 맞추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된다.

최원석은 대구대학교에서 사회복지학 박사과정을 수료하였으며, 주요 관심분야는 여성정책, 가족정책 등이다.

(E-mail: mission2000@hanmail.net)

이진숙은 독일 Wuerzburg대학 사회학과 가족사회학 석·박사학위를 받았으며, 현재 대구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다. 주요 관심분야는 여성정책·가족정책, 노인정책 등이다.

(E-mail: jslee-kim@hanmail.net)

참고문헌

- 강성호(2011). 부양의식 및 공적이전소득의 사적이전소득에의 구축효과와 소득보장효과. 재정정책논집, 13(1), pp.113-144.
- 권혁남(2011). 여성고령자의 경제활동 지속을 위한 고용정책 및 WLB를 위한 제언. 여성학연구, 21(2), pp.153-195.
- 김양이, 이채우(2008). 중년층의 노후준비수준에 관한 연구. 한국사회복지조사연구, 19, pp.55-82.
- 김영란, 주재선(2010). 베이비붐세대 남녀 특성 비교 연구. 서울: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김학주, 우경숙(2004). 중·고령자의 재취업 결정 요인에 관한 연구. 한국노년학, 24(2), pp.97-114.
- 박미석(2005). 우리나라 노인복지서비스 기반 구축을 위한 기초연구: 노후생활준비와 노인복지서비스 요구도를 중심으로.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3(4), pp.1-15.
- 박성정, 오은진, 김미경, 박성희(2008). 고령층 여성의 직업능력개발 지원방안. 서울: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박창제(2008). 중고령자의 경제적 노후준비와 결정요인. 한국사회복지학, 60(3), pp.275-297.
- 방하남, 신동균, 이성균, 한준, 김지경, 신인철(2010). 한국 베이비붐세대의 근로생애 연구. 서울: 한국노동연구원.
- 배문조, 전귀연(2004). 은퇴에 대한 태도 및 은퇴 준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대한가정학회지, 42(7), pp.89-102.
- 배은경(2004). 한국사회 출산조절의 역사적 과정과 젠더: 1970년대까지의 경험을 중심으로. 박사학위논문, 사회학과, 서울대학교, 서울.
- 배은경(2008). 구술생애사를 통해 본 산업화 시기 한국 어머니의 모성경험 - 경제적 기여와 돌봄노동, 친족관계 관리의 결합-. 페미니즘연구, 8(1), pp.69-123.
- 서미경, 최희진(2011). 비취업 베이비부머와 예비노인의 취업의사 결정요인 비교연구. 노인복지연구, 53, pp.183-212.
- 서미경(2012). 중·고령기 여성의 재취업 경험과 생애적 의미에 대한 현상학적 연구. 사회복지정책, 39(1), pp.199-226.
- 성미애, 최새은(2010). 남녀 은퇴자의 은퇴적이 경험과 생활만족도에 관한 연구. 대한가정

- 학회지, 48(9), pp.13-25.
- 성지미, 안주엽(2006). 중고령자 취업 결정요인. 노동정책연구, 6(1), pp.39-74.
- 성효용, 김민경(2003). 여성의 미취업탈출요인에 대한 연구: 성별비교를 중심으로. 여성연구, 19, pp.117-148.
- 양순미, 홍숙자(2002). 중년기 농촌여성의 노후준비와 관련변인 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0(6), pp. 141-150.
- 양영철, 임정현(2010). 중년여성의 노후소득보장정책에 관한 연구: 노후 재취업을 중심으로. 보건사회연구, 30(2), pp.371-422.
- 엄동욱(2008). 중고령자의 취업결정요인 - 국민노후보장패널 1차년도 자료를 중심으로. 노동정책연구, 8(3), pp.17-38
- 여윤경(2005). 한국 중산층 가계의 노후자금 적정성. 한국노년학, 25(1) pp.21-36.
- 우석진, 이윤수(2011). 한국 베이비부머의 주관적 기대와 자산축적. 노동리뷰, 2월호. pp.10-21.
- 이성용, 방하남(2009). 성,연령별 중,고령 노동자의 취업 양극화 분석. 한국노년학, 29(2), pp.593-610.
- 이소정(2011). 베이비붐 세대의 노후준비 실태와 노후설계 지원 서비스의 방향. 보건·복지 Issue & Focus, 98, pp.1-8.
- 이신영(2009). 도시거주 노인의 경제적 노후준비에 영향을 주는 요인 연구. 사회과학논총, 28(1), pp.205-224.
- 이여봉(2012). 중년여성의 노후 준비에 관한 연구. 가족과문화, 24(1), pp.31-70.
- 이연호(2007). 고령화사회의 노후대책과 노인복지 서비스 선호도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행정대학원 병원행정 전공, 한양대학교, 서울.
- 장지연, 부가청, 이혜정, 신현구, 이철희, 장숙량 외(2008). 중고령자 노동시장 국제비교연구. 서울: 한국노동연구원.
- 정경희(2005). 2004년 전국 노인생활실태 및 복지욕구조사. 서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정경희(2011). 베이비붐 세대의 라이프스타일 및 복지욕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1년 제 1차 베이비붐 세대 미래구상포럼. 서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1, 1, 27, 서울: 베이비붐 세대의 현재와 미래 무엇이 문제인가, pp. 3-32.
- 한경혜, 손정연(2012).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 과정, 경제적·관계적 자원과 심리적 복지감:

- 남녀차이를 중심으로. *한국가족복지학*, 38, pp.291-330.
- 허준수(2006). 도시지역 미취업 노인들의 취업의사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한국사회복지학*, 58(1), pp.291-318.
- 홍성희, 박인숙(2006). 중년기 남녀 봉급생활자의 은퇴계획 비교분석: 경제적 준비와 건강준비를 중심으로.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4(1), pp.193-207.
- 홍세희(2005). 이항 및 다항 로지스틱 회귀분석. 서울: 교육과학사.
- 황희숙, 김윤재(2011). 고령자의 재취업에 미치는 요인 분석 연구. 한국국정관리학회. 2011년 한국국정관리학회 추계학술대회 자료집. 충북, 충북대학교, 2011.12.2, 충북: 국정관리의 현안문제와 행정학 교육, pp.87-109.
- 황희숙, 김윤재, 박정우(2012). 기혼여성의 고용지위 결정요인에 관련한 사회변인 분석. *벤처창업연구*, 7(3), pp.181-190.
- Amy, A. (2004). *What are People Doing to Prepare for Retirement?* Structural, Personal, Work, and Family Predictors of Planning Case Western Reserve University.
- Anderson, M., Li, Y., Bechhofer, F., McCrone, D., Steward, R. (2000). Sooner rather than later? Younger and middle-aged adults preparing for retirement. *Ageing and Society*, 20, pp.445-466.
- Beck, S. H. (1984). Retirement Preparation Programs Differentials in Opportunities and Use. *Journal of Gerontology*, 39, pp.596-602.
- Foster, A. C. (1996). Employee Participation in Savings and Thrift Plan. *Monthly Labor Review*, pp.17-22.
- Gordon, B. T., Richard, M., Johnson, W., Dan P. M. (2007). Why Do Boomers Plan to Work Longer? *Gerontology*, 62(5), pp.286-294.
- Lisa, M. (2011). *The sandwich generation: The challenges of caring for an elderly parent and raising children*. California State University.
- Morgan, L. A. (2004). Retirement Financial Preparation: Implications for Policy. *Journal of Aging & Social Policy*, 16(2), pp.19-34.
- Susan, Q., Stacy, C. (2006). Australian baby boomer's expectations and plans for their old age. *Australian Journal on Aging*, 25(1), pp.3-8.
- Tonia L. W. (2008). Women as Wives, Mothers or Workers: How Welfare Eligibility

보건사회연구 34(1), 2014, 299-327
Health and Social Welfare Review

Requirements Influence Women's Labor Force Participation - A Case Study
of Spain. *Journal of Economic Issues*, 42(4) pp.981-1004.

통계청. <http://www.kostat.go.kr/> (2013.6.3)

A Study on Factors Influencing for Work Plan of Female Babyboomer

Choi, Won-Seok
(Daegu University)

Lee, Jin-Sook
(Daegu University)

This study aims to examine the determinant factors of work plan of female babyboomers for the aged and to explore the programs for their independent living in their aged life. For this, this study analyzed the second Woman-family-panel survey data and selected the 1718 female babyboomers among the survey objects. Analysis methods were frequency analysis, correlation analysis and hierarchial logistic regression analysis. The results were as below: First, the female babyboomers had work plan for the aged, if they were working at that time of survey and their economic situations were evaluated as low. The female babyboomers with less children had stronger work plan than the other women. The female babyboomers who had to transfer income to family members and savings wanted to work more strong. According to the study results, some supportive policies to increase workplaces and income were suggested in this study.

Keywords: Babyboomer, Woman, Work plan, Preparation for the Aged, Logistic Regression Analysisdology